

# 지리산반달곰 새끼 5마리 출산 ‘경사났네’

〈멸종위기종 1급〉

## 국립공원측 어미 반달곰 3마리서 출산 확인

### 37마리로 늘어...2020년 50마리 유지 種 복원

지리산 반달가슴곰이 새끼 5마리를 출산했다. 멸종위기종 1급으로 천연기념물(329호)인 반달가슴곰은 지난 2004년부터 지리산에서 종(種) 복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리산 반달가슴곰 새끼 5마리가 최근 태어난 것을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리산 일대 야생에서 활동 중인 반달가슴곰 중 8살 된 어미곰 RF-25가 암수 1마리씩을, 역시 8살짜리 RF-21이 수컷 1마리를 각각 바위 굴에서 출산했다. 자연적응훈련장의 5살 된 어미곰 CF-37도 성별 미상의 새끼 2마리를 낳았다.

지리산 반달가슴곰은 태생별로 K(한국)·R(러시아)·C(중국)로, 성별로 F(암컷)·M(수컷)으로 표기한다. 이들 새끼 중 야생에서 태어난 수컷 1마리는 어미곰 RF-21이 양육을 포기하고 달아나 현재 야생동물 의료센터에서 기르고 있다. 새끼들의 몸무게는 모두 4kg 이상으로 비교적 건강하다. 반달곰은 여름에 짝짓기를 한 뒤

겨울철에 200~400g 크기의 새끼를 출산한다. 이후 몇개월 사이 급격히 성장, 동면굴에서 나올 때 몸 3~4kg까지 자라게 된다.

새끼 반달곰이 태어나면서 지리산 야생에는 현재 37마리의 반달곰이 살게 됐다. 적응훈련장에서 태어난 새끼 2마리와 의료센터에서 포육 중인 한 마리를 올 가을 추가로 방사하면 지리산 야생에서 살아가는 반달가슴곰은 40마리로 늘어난다.

공단 측은 반달곰 복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유전자 분석을 통해 가계도를 조사하던 중 기존에 파악하지 못했던 새로운 암컷 반달곰 1마리(KF-52)를 추가로 발견했다.

공단 측은 또 지난 2013년 RF-21이 출산한 것으로 확인됐다가 3~5개월 이후 어미곰과 떨어져 행방이 묘연했던 수컷 반달곰 1마리(KM-51)가 살아있는 사실도 확인했다. 이는 새끼곰이 어미로부터 조기 독립해도 충분히 생존할 수 있음을 보여준 첫 사례라고 공단 측은 설명했다. 반



멸종위기종 1급으로 천연기념물(329호)인 지리산 반달가슴곰이 지난 겨울 새끼 5마리를 출산했다. (사진 국립공원관리공단 제공)

달곰은 통상 생후 18개월 가량 어미곰과 지내다 독립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단 측은 오는 2020년까지 반달곰 50마리가 지리산 야생에서 안정적인 개체수를 유지하고 생존할 수 있도록 복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 관계자는 “지난 2009년 첫 출산 이후 지속적으로 새끼를 출산해 현재 24개체가 자연에서 태어났다”며 “유전자 분석으로 마련한 가계도를 바탕으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복원사업

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 측은 겨울잠에서 깬 곰들이 점차 행동반경을 넓혀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리산국립공원에서 정해진 탐방로를 벗어날 경우 곰과 마주칠 가능성이 커진다고 주의를 줬다. 산행 도중 멀리 떨어진 곳에서 곰과 마주칠 경우 조용히 자리를 벗어나고, 가까이에서 갑자기 마주칠 경우 시선을 응시하면서 뒷걸음질치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공단 측은 설명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04 해질 19:03 달뜨기 01:58 달지기 12:55

‘꽃엔딩’ 저기압 영향을 받아 흐리고 아침부터 가끔 비가 오겠다. 예상 강우량은 10~40mm.

◇ 지역별 날씨 (°C)

광주	11/17	보성	가평	9/13	
목포	가평	9/14	순천	가평	10/14
여수	가평	10/13	영광	가평	9/17
나주	가평	9/17	진도	가평	10/15
완도	가평	10/14	전주	가평	10/16
구례	가평	10/15	군산	가평	9/15
강진	가평	10/14	남원	가평	9/15
해남	가평	10/15	홍산도	가평	9/11
장성	가평	8/15			

◇ 바다 날씨

지역	암반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해	북동~동	0.5~1.5	북동~동	1.0~2.0
남해	남해	북동~동	1.5~2.5	북동~동	1.5~2.5
남해	서부	북동~동	1.0~2.5	북동~동	1.0~2.5
남해	서부	북동~동	2.0~4.0	북동~동	2.0~4.0
남해	서부	북동~동	1.5~3.0	북동~동	2.0~3.0

◇ 생활지수

- 수면: 90
- 운동: 20
- 빨래: 20

◇ 주간 날씨

날짜	날씨	기온
14(화)	☁	6/12
15(수)	☁	6/21
16(목)	☁	9/19
17(금)	☁	8/19
18(토)	☁	9/22
19(일)	☁	12/18
20(월)	☁	11/21



유채꽃 만발 영산강변

휴일인 12일 나주 영산포 영산강변에 노란 유채꽃들이 꽃망울을 터뜨렸다. 드론을 띄워 내려다 본 유채꽃밭과 산책로의 모습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여수서 음주운행 의혹

### 관리어선-화물선 충돌

#### 1명 숨지고 1명 실종

여수 해역에서 양식장 관리선이 화물선과 충돌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 사고를 낸 어선 선장은 선원에게 구멍조끼를 착용시키지 않은 채 음주 운행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12일 여수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5시10분께 여수시 돌산읍 남면 화태대교 아래 해상에서 군내항으로 향하던 화물선 보명호(40t)와 이모(62t)씨의 선외기 어선 수연호(1.18t)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이씨의 아내 박모(여·58)씨가 화물선에 머리를 부딪히고 바다에 빠진 뒤 화물선 선장 황모(56)씨 등 선원 3명에 의해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신고 전화를 받은 해경은 사고 해역과 3km 떨어진 돌산해양경비안전센터 순찰정과 경비정 2척(50t)을 출동시켜 10여 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

이날 어선에 탄 선원은 일가족 4명으로 탑승했던 이씨의 장남(38)은 현재 실종된 상태다. 여수해경은 경비정 6척과 민간 어선 5척 등을 동원해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다. 이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9%인 것으로 확인됐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여수=김창희기자 chkim@kwangju.co.kr

## 회계책임자 아닌 아내 통해 선거비용 지출

### 여수시의원 항소심 벌금 200만원 ‘당선 무효’

광주고법 형사 1부(부장판사 서경환)는 12일 회계책임자가 아닌 아내를 통해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여수시의원 장모(52)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장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장 의원은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을 규정한 정치자금법 49조를 어겨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으면 당선무효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 의원은 최근 4년간 세 번의 선거를 집중적으로 치러

선거관련 법률규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런데도 선거회계를 잘 알지 못하는 황씨를 책임자로 신고하고 아내가 선거비용을 지출하는데 동조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지난해 5월 24일부터 6월 13일까지 6·4 지방선거를 전후해 회계책임자로 신고한 황씨가 아닌 아내를 통해 선거비용 4400여만원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계책임자 황모(24)씨에 대해서는 선고유예, 장 의원의 아내(53)에 대해서는 벌금 250만원을 원심대로 선고했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 법원 “신안군수 불기소처분 정당”

### 선거법 위반 고발 재정신청 기각

광주고법 형사 2부(부장판사 박병철)는 고길호 신안군수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의 고발사건과 관련, 재정신청을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봤다.

고 군수는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고발돼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고발인 측은 검찰 항고에 이어 재정신청을 했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피고소인을 재판에 부처줄 줄 것을 고등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 관심만 있고 관점이 없는 시대 그래서 우리는 신문을 펼칩니다



빠르고 깊이 있는 정보, 신문은 뉴스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가장 우수한 매체입니다

한국신문협회  
Korea Association of Newspapers